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9월 5일(주일) 제1359호

추수감사주일 '사르밧 프로젝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로 쌀을 나눈 '한나의 집'.

9월 26일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순별로 현금 봉헌 경남, 충청 지역 5개 농어촌교회에서 구입한 쌀 전달

온누리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공동체에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선정하거나 교회 밖 이웃들과 단체를 추천하면 각 순에서 봉헌한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으로 경남과 충청 지역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농사지은 쌀 한 포대(20kg)를 배송해주는 프로젝트다. 사르밧 프

젝트 대상자보다 농어촌교회에서 구입한 쌀이 많으면 외부 기관과 개인에게도 나눠준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가를 원하는 순은 오는 9월 26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 6만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봉헌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는 각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장로가 선정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선정해서 사회선교본부에 알려주면 된다. 쌀을 배송할 주소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외부 단체와 개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9월 26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을 봉헌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사회선교부에 명단을 제출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쌀 배송을 해준다.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쌀 2,000포대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교회 밖 이웃들과 나눴다.

최감사 권사(가명)는 "남편이 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공동체에서 저의 사정을 알고 쌀을 보내줬다"면서 "쌀에 담긴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고 인사했다.

박순길 장로(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의류 기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도 이어져

온누리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의류를 기부했다.

헤지스 트레이닝복(10~15세) 60세트, 여자 청소년 조끼패딩 및 트레이닝복 50세트, 성인 남녀 점퍼 100개, 여성용 니트 20개 등을 기부했다. 서초A와 서초B공동체는 공동체 선교현금 각 500만 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어린이(0~2세, 3~4세, 5~6세, 7~8세 총 137명)들을 위한 의류 32박스를 구매해서 전달했다.

온누리교회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도 이어가고 있다. 9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현지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소식과 기도문이 하루 한 편씩 게재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 정현주, 홍하영 기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2일~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세계 크리스천이 같은 기간, 같은 시간에 함께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40 days for life(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기도 캠페인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힘을 합친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개신교, 그 외 다른 요일은 천주교에서 기도 캠페인을 주관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온누리교회도 이 뜻깊은 기도운동에 동참한다.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캠페인 전체 시간대를 온누리교회가 섬길 예정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된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 봉사자들이 기도를 이어간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침묵 기도를 통해 낙태 종식과 낙태 시술 종사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도한다. 피켓과 기도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준비해준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도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40 days for life(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단체이다. 금식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낙태 종식과 낙태산업 종사자들이 프로라이프(낙태 반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감사예배

대전온누리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했다. 9월 5일(주일) 오전 11시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대전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 3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세종시 복음화와 차세대 및 젊은 부부 부흥을 위해 세종교육관을 설립했다. 차세대 양육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는 "사도행전의 사명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순전한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생의 짐을 지는 새로운 방식

마태복음 11:28~30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지는 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고, 또 다른 인격은 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초청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할 수 있는 분은 단순히 훌륭한 인격자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고,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절대적인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짐을 뜻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음의 짐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죄와 정욕으로 인해 만들어진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환경과 상황에 의한 짐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짐이든 지는 인생의 짐을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굴레에 매여서 끊임없는 후회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서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삶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왜 중독이 만연할까요?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스스로 탈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라 미로일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28절).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라거나 어떤 예식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개입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개개인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어떤 중보자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하신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단순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보유하고, 교회 경험이 있고, 봉사 이력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영혼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쉬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얹어 주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마취와 마비를 가져올 뿐입니다. 인생의 짐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쉬는 무엇입니까?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짐이 힘겹게 여겨지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피로로 힘겨워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체의 피로 너머에 있는 마음의 죄가 가져다주는 무게와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는 우리 옛사람을 복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는 단순히 짐을 잠시 풀어서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의 짐을 만들어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될 때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질 수 있습니다.

양심의 평화

둘째, 양심의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짐이 없는 것은 끊임없는 양심의 공격과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양심의 자극이 있습니다. 타락했지만 우리의 양심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물어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은 양심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양심의 소리, 죄로 인하여 왜곡된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불필요한 책임감에 빠지게 해서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공격하고, 무가치하며, 유익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정죄와 자책감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타락한 양심이 더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정당한 양심의 소리는 듣지만, 부당한 양심의 자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

셋째,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고,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쉬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에 눌러 힘겨울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아래 있는 인격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쉬를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를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29~30절).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짐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고,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멍에입니다.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 소의 어깨를 연결해서 함께 수레를 끌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하고, 짐을 지우는 도구입니다. 대개 힘 있고 경험 많은 소 옆에 힘없고 경험 없는 소를 붙여서 경험 없는 소가 밭을 갈고, 짐을 감당하는 방법 등을 배우도록 고안한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맞추고, 속도와 방향,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멍에를 질 때 얼마나 곤비했습니까? 스스로 짐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한 것 같지만 예수님 임재 아래 머물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 마음으로 인생의 짐을 질 때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멍에는 다른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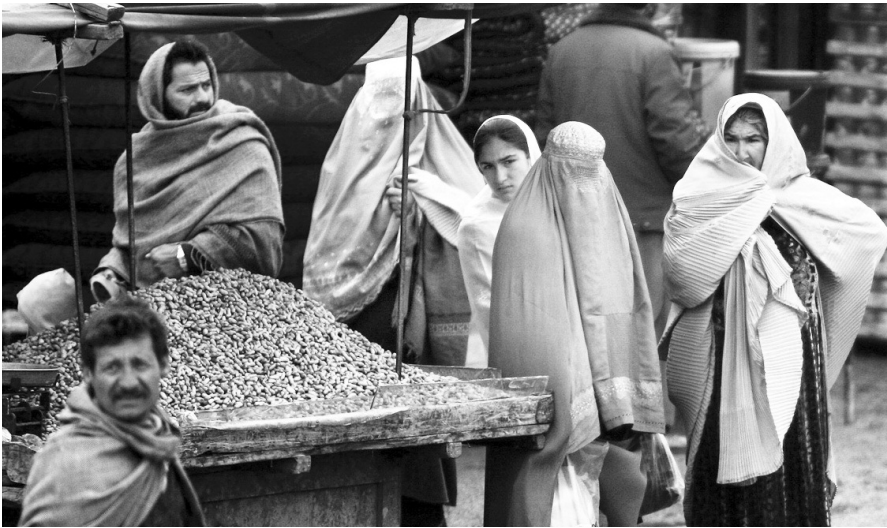
〈14면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월 28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떠나면서 탈레반이 그곳을 완전히 장악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는 벌써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슬람 율법 아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크리스천들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 도운 이들이 표적이다. 아프간의 여성들은 집 밖을 마음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아프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많은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을 피해 나라를 떠나고 있다.

“이슬람법 안에서 여성을 존중하겠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을 한 그날 부르카를 두르지 않고 외출한 아프간 여성이 피격당해 사망했다. 탈레반이 지키고 있는 이슬람 율법 ‘사리아’에 의하면 여성들은 외출, 취업, 교육이 제한된다. 이슬람 외에 개종자는 죽여야 하고, 죽여도 죄가 아니다. 현지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들에 의하면 탈레반이 크리스천 개종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찾아가겠다’는 경고를 보낸 상황이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탈레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산속

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과거 탈레반 집권기(1996년~2001년)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미군이 아프간 전쟁 종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프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도움 방법이 거의 없다. 지금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마음 한뜻으로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간을 떠난 난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뿐이다.

중보기도가 매우 시급한 상황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9월 28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한다. 선교사들과 선교 리더십들이 매일 오후 5시 아프간 현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게재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이 엄청난 공포 앞에서도 아프간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D 선교사는 특히 아프간의 크리스천 청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했다.

“최근 아프간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고르고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경고를 받고 피신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프간 청년 크리스천들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천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B 선교사도 아프간의 크리스천들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탈레반 집권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상황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입니다. 몇몇 크리스천 형제에게 전화했더니 하나 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아프간을 위한 중보기도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과거 탈레반을 피해 아프간을 떠난 난민이

약 280만 명이다. 유럽 연합은 이번 탈레반 집권을 피해 200만 명의 난민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등은 아프간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다. 이웃국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입장이다.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아프간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한국을 도운 아프간 사람들을 전격 수용해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프간 난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레반, 알카에다, IS의 차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슈투족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무장단체다. 이슬람 율법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창시한 이슬람 수니파 무슬림 무장단체다. 이슬람 적대 세력과의 전쟁을 위한 단체다. 반미, 반유대가 주요 목표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20여 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S’는 알카에다에서 반기를 들고 독립한 세력으로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이슬람 제국의 부활이 목표다.

그러나 탈레반 저항 전선을 이끄는 암룡과 살레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은 “탈레반과 IS, 알카에다의 차이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차이와 같다”면서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목회 칼럼



김홍주 목사
(2000선교본부장)

아프간 크리스천이 탈레반의 검문에서 스마트폰에 있던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발각되면서 그 자리에서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또 많은 아프간 크리스천들이 집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황량한 그 산속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서도 아프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이슬람들이 회심했다. 최소한 수천명의 이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간 전역에 지하 교회들이 세워졌다.

탈레반이 따르는 이슬람 율법 ‘사리아’에 의하면 배교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아프간 크리스천들의 배교가 확인만 되면 당장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도 피신했다.

이번 아프간 사태로 중앙아시아와 중동권 선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 근본주의

이슬람의 세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크리스천들의 부흥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아프간의 인접국인 파키스탄, 이란, 터키에서는 최근 크리스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근본주의 이슬람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실망한 젊은 무슬림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지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단체를 돕는 등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아프간 크리스천들을 돌보는 사역도 계속할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

영향력이 아프간 전역에 미치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부족국가였던 아프간에는 여전히 많은 부족과 군벌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 크리스천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교제도 할 예정이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이다. 온누리교회에게는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책무가 있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면서 온누리교회가 아프간을 집중적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책무

'미라클 모닝' 도전기

삶이 달라지는 기적의 아침 만들기!

미라클 모닝,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자기계발, 자기 돌봄 방법이 있다. '기적의 아침'이라는 뜻을 가진 '미라클 모닝(Miracle Morning)'이다.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 일어나 독서나 운동, 명상, 공부 등 자기계발 또는 자기 돌봄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일과가 시작되기 2~3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이 계획해둔 일을 행하는데 기자는 여기에 신앙생활을 더해서 도전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루가 달라졌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면서 경험한 일상과 미라클 모닝의 의미와 장점, 성공적인 미라클 모닝을 위한 소소한 팁을 공유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침 6시. 졸린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책상에 앉는다. 가장 먼저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둔 큐티책과 성경책을 펼친다.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노트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한다. 보통 큐티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아침'이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만 달라졌을 뿐인데 하루가 특별해졌다. 말씀을 가까이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겼다. 아침밥 챙겨 먹기, 하루 계획하기, 일찍 잠자기 등 나를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생긴 건 덩이다.

왜 미라클 모닝인가?

최근 인스타그램에만 미라클 모닝 관련 게시글이 55만 개를 넘어서었다.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라클 모닝은 미국 작가 할 엘로드(Hal Elrod)가 쓴 책 <미라클 모닝>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나 명상, 운동 등 자신이 계획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독서나 운동, 명상, 외국어 공부, 자격증 준비, 신문 스크랩, 성경 읽기 등을 한다. 물 마시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꼼꼼하게 양치 및 세수하기 등 소소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 이 작은 경험이 어떻게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 작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라클 모닝의 효과는 이미 많은 책과 후기로 입증됐다. 책 <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는 스무 살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열한 군데가 골절되고 뇌 손상을 입었다. 의사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한 확신의 말을 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일기를 쓰는 등 작은 생활 습관을 만들면서 급기야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할 엘로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



기자가 '미라클 모닝 챌린지' 게시글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피드.

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보내는 습관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의 저자이자 구독자 20만 명을 지닌 인기 유튜버 김유진 변호사는 새벽 기상 습관을 만들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유진 변호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 명문대 로스쿨 편입, 변호사 시험 합격,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단편 영화제 참가,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의 성과를 냈다. 김유진 변호사는 “새벽에 일어나 얻은 시간을 활용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고백했다.

유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서 '미라클 모닝'을 검색하면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가 달라졌다”, “다섯 번째 올리는 알람에 겨우 일어났지만, 오늘도 해냈다”, “벌써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등의 후기들이 가득하다. 실제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면서 자격증 취득하기, 다이어트, 책 읽는 습관 기르기 등 원하던 계획을 이뤄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성경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

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시 5:3).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말과 심정,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호소했다(시 5:1~2). 하나님은 다윗의 아침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시며 보호하셨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막 1:35).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사역할 힘과 지혜를 얻으셨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일까? 오후에 잠시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도 되고, 늦은 밤 잠들기 전 시간도 충분하데 왜 아침일까? 아침이 생업과 가사노동 등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일상에 지친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또한 아침은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 먹거나 운동을 한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전일 주식시장 결과와 뉴스, 각종 투자 정보 등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의 첫 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성공적인 미라클 모닝을 위한 소소한 방법

그렇다면 귀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찍 일어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잠은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기적의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이 꼭 필요하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다. 아침에 할 일을 미리 계획해둔다면 아침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을 설레게 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어릴 적 소풍 가는 날, 첫 데이트 하는 날 등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반짝 떠졌던 것과 같은 원리다. 기대하는 일을 계획하면서 잠이 든다면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를 도와주는 앱을 활용하면 더욱 좋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를 돕는 앱에서 지정한 시간에 알람을 울려준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침밥 챙겨 먹기, 공부하기, 산책하기 등 자신이 설정한 건강한 생활 습관 사진을 올리면 관리자가 피드백을 달아주기도 한다. 지속적인 실천이 힘든 사람들은 앱의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를 도와주는 앱은 '루티너리', '훈족의 제왕' 등이 있다.

넷째,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SNS에 미라클 모닝 성공 일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성공 일지를 읽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의 성공 일지를 올리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다섯째, 함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기자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Zoom)으로 새벽 큐티 모임을 하고 있다. 혼자 할 때는 '오늘 하루만 쉬자'면서 넘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같이하면 서부터 그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친구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잠을 깨워주기도 한다. 친구들과 끼리 작은 보상이나 별점을 정해서 모임 참여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 기고

생명의 성(性)과 죽음의 성(性)

이 시대의 성과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한국성
과학연구협회 팀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

28).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창조하셨다. 남녀가 결혼 안에서의 성(性)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며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잊으면 복(福)은 화(禍)가 되어 버린다.

2021년 7월, 이 시대의 성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두 가지 뉴스 기사가 있었다. 성도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기사에 나타난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첫 번째 기사는 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였다. 20년 전보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인구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골자다. 연구자는 특히 20대가 60대만큼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비혼 풍토와 페미니즘의 영향, 취직 준비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여유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대는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했다’는 응답이 불과 58%로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이 기사가 각종 포털을 장식하는 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기사 어디에도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마치 20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종용하는 느낌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0대 결혼 인구가 6%가 채 되지 않는다. 94%가 미혼이다. 30대가 되어야 60%가 넘고, 40~50대가 되면 80% 정도가 기혼자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20대가 가장 성관계를 안 하는 이유는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연한 답이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20대가 비혼 풍토, 급진적 페미니즘, 여유 없는 삶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성생활이 결혼과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해 연구 자체가 시대의 성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기사가 보여주

는 진짜 문제는 20대의 절반 이상이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영국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동안 낙태 숫자도 전례 없는 규모로 급증했다는 보도다. 영국은 현재 임신 24주 미만 태아에 대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 영국 보건사회부가 발표한 ‘2020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20만9,917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가임 여성 1,000명당 18.2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 낙

죽음에 이르게 한다. 크리스천들은 성이 생명의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생명의 성(性)을 지키는 방법

그렇다면 생명의 성(性)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히 13:4). 결혼의 침상은 순결하지만, 결혼 이외의 성은 우리를 더럽힌다. 인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고전 6:19),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이라고 하셨다(고전 3:16). 결혼 밖의 성관계가 허용되

수 있는 명령이다. 크리스천 부부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잠자리를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미혼인 자들은 거룩한 성전인 몸에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혹의 자리를 주저함 없이 벗어나야 한다.

둘째, 성(性)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하찮게 여긴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관계의 실패에 따른 정서적 황폐함과 성병, 원치 않는 임신과 최악의 결과인 낙태까지 초래한다. 이 모든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황폐함이다. 타락한 세대는 모든 성관계를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도,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조차 범죄가 아니라고 외친다.

하나님께서 성을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마 16:26)며 우리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성적 죄악이 가장 큰 죄는 아니지만,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이 가장 큰 죄임은 틀림없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의 품이 복된 것인 줄을 알고 항상 만족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잠 5:18-19). 부모 된 자들은 배우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성이 얼마나 귀한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자녀들에게 단지 남성과 여성으로서 성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부부로서 성을 누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온전히 하나 되는 성의 열매로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이야기를 전해줘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엡 2:10)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하셨다(출 19:5).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보물로 살아가 수 없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 육체의 쾌락이 행복이라며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죄의 노예는 더러울 뿐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상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아는 자가 육체의 욕망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

거짓된 성이 어둠 속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한다. 잘못된 죽음의 성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을 누릴 것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 성도들이 나서서 생명의 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실 것이다.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음의 성(性)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생명의 성(性)을 누릴 것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
생명의 성을 가르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태 급증을 불러왔고,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낙태 절차를 간편화한 것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 병원 방문 없이 전화나 온라인 상담만으로 낙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를 시도하는 먹는 낙태약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아 살해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인구의 합은 5,9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170만 명과 비슷하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27만 명이 태어난 것을 참고하면 영국에서 지난해 21만 명의 태아가 낙태 당한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할 수 있다.

성 문제는 생명의 문제다. 하나님은 성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는다. 하나님을 외면한 성은 태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영혼을

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하나 되어 평생 헌신한 부부가 육체적, 정서적, 영적 친밀함을 누릴도록 성을 선물로 주셨다. 결혼 전의 성관계는 상대와 하나가 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행위이고, 영적인 친밀함은 배제하고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는 행위다. 상대의 전부가 아니라 육체의 일부분 좋아하는 것이고, 권태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다.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상대에게 순수한 호감과 함께 항상 음욕이 섞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성 교제하면서 스킨십 진도를 못 맞추다고 상대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별당할 수도 있다. 그때 느끼는 불쾌함은 장차 결혼 이후 누릴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명령 중에서 쉽게 지킬 수 있고, 약속된 복을 한껏 누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겸손하게!

“여름 아웃리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아웃리치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웃리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심적으로도 지친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아웃리치는 사랑을 전하고 섬기며 힘을 얻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막상 아웃리치를 마치고 나면 어려움과 감정적인 상처들이 일어나 후유증을 앓는 성도들이 많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뜻을 모으기도 한다. 교회에서도 마

찬가지다. 때로는 리더십으로 섬길 때도 있고, 팔로워로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 각자 은사에 따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다. 격려, 위로, 교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빌립보교회도 많은 일을 하고 섬겼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교회를 향해 “한마음으로”라고 말했다.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섬길 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한마음을 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는지를 질문하고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

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빌 2:3).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했다. 우리는 겸손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겸손보다 우월과 탁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겸손보다 우월과 탁월을 선택하는 이유는 인정욕구 때문이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겸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겸손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마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기심과 허영이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교만 안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적인 마음이 이기심과 허영이다. 누구에게나 이기심과 허영이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기심과 허영 된 마음을 내려놓고 본받아야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겸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실천으로 옮겨진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속적 욕망으로 서로 다투거나 허영심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도, 어떤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야 한다.

아웃리치 이후 여러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님들에게 잠시 삶을 돌아보기를 권한다.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웃리치는 허영과 이기심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 삶을 넘어지게 하면 반드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대한다.



이우람 목사
(Pole2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는 부부

해외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택배를 아내가 받기로 했다. 아내는 발송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수령 주소 등 기재할 사항을 알려줬다. 해외 발송 담당자에게서 택배를 보냈다는 소식을 받고, 우리 부부는 그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기다리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중요한 택배였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발송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를 겨우 알 수 있었다. 아내가 해외 담당자에게 알려준 주소에 착오가 있었다. 택배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내는 그 상황에서 몹시 자책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몹시 실망스럽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와 말이 무엇일까?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많은 부부가 공감하겠지만 실수한 배우자를 용납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태도로 “괜찮아?”라고 묻고, “괜찮아!”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실수를 두고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최상의 부부일 것이다. 하지만 “괜찮아?”, 혹은 “괜찮아!”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실수한 상황이라면 책망 섞인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아니 왜 그

랬어”, “그러니까 잘 확인했어야지”, 심하면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라는 비난의 말까지 나올 수 있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실수’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많다. 실수와 연관 지어서 따라오는 것은 책망과 핀잔, 때로는 체벌이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면 되지” 등의 격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실수에 대한 대가로 책망과 핀잔, 체벌 경험은 많은 사람일수록 ‘완벽적인 성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이 실수한 상황에서 비난과 핀잔 대신 ‘따뜻하게 용납되었던 경험’이 부족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 그 따뜻한 경험이 꼭 필요한데 말이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함을 부부관계에서는 꼭 경험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실수는 부부관계와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외도나 도박 등의 심각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실수다. ‘실수, 그리고 용납’의 영역에서 심리적 유연성이 부족한 배우자라면 부부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용납하기보다 종종 그랬듯듯이

비판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실수에 비난과 책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는 따뜻한 용납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우자가 실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용적인 자세와 위로, 격려의 말이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는 태도와 힐난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비난과 책망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실수의 종류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배우자의 실수로 인한 영향이 배우자에게만 있다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의 범위가 부부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금전적으로 가족이 피해를 입은 상황,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다치게 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사건마다 각자 경험했던 실수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실수와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

배우자의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분노, 미움, 불안, 염려, 실망, 좌절 등 다양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

순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한다. 가능하면 배우자의 실수에 객관성을 유지하며 대화를 나눠 보는 게 좋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실수 상황에서 격려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침묵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칠 때 어떤 행동이나 말보다 견뎌보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성경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실수를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격려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이 자연스러운 부부의 일상이 된다면 더욱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적용하기: 최근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보고 “괜찮아~라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실수보다 당신이 여전히 소중한데”라고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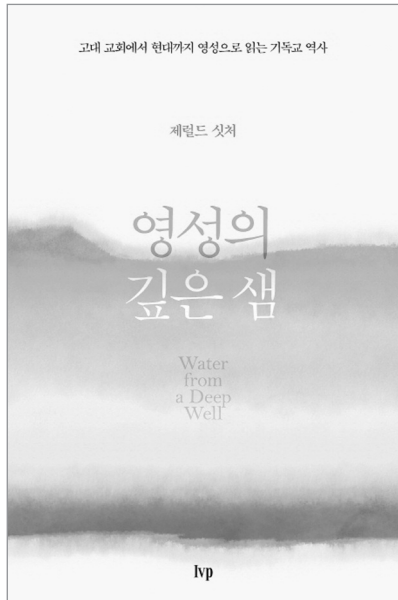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기독교의 원천과 깊은 영성의 샘



〈영성의 깊은 샘〉
제럴드 시처 저 | lvp | 23,000원

‘영성(Spirituality)’은 ‘영성’하다는 말이 있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체계적이지 않고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중요한 개념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학문과 실천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영성이라는 분야는 일반인에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풀러신학교와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하고 역사를 전공한 제럴드 시처(Gerald L. Sittser)는 깊은 기독교 영성의 세계라는 울창한 숲속 오솔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미 교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본인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책을 출간했다. 코로나19 시대 영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 책은 고대 교회에서 현대 교회까지 이르는 넓고 방대한 기독교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게다가 독자들에게 쉽고 명쾌한 언어로 깊이 있는 이해를 주고 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영성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 영성, 사막의 교부들의 삶, 수도원 영성의 발흥 원인,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영성 비교, 중세시대의 일상 영성의 특징, 종교개혁가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그들의 영성을 잇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뿌리와 근대 개척선교사들의 영성에서 현대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둘째, 일반 영성 책들과 다르게 저자 개인

의 영성이 책 안에 농축되어 있다.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회중들의 삶에 은은하게 파고들어 고대의 영성을 일상의 영성으로 메아리쳐 울리게 한다. 이 책은 사변적이지 않고 고대와 현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위대한 저술가인 제럴드 시처는 이 방면에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글은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이며, 깊이까지 더해져 독자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덧 오늘 나의 영성과 신앙에 대해서 되물고 싶어진다. 우리 교회의 일상과 영성, 신앙의 현주소, 미래의 방향까지 내다볼 수 있게 만드는 특유의 설득력이 있다.

셋째, 이 책은 영적인 깊이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책으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의 남다른 열정과 수고 덕분에 학문과 실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는 뛰어난 역사적 고증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연구하고 기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그룹 토론과 생각해볼 나눔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마다 고전적 참고도서 목록과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둬서 소장 가치가 높기까지 하다. 영성을 더 깊이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코로나19 피로도가 높는데 올 여름은 유

난히 답기까지 했다. 7~8월 중에 37일이 폭염이었다. 나는 이 서적을 읽으면서 뜨거운 여름나기를 했다. 온라인 줌(Zoom)으로 모여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나눔도 했다. 책을 읽는 나 도 즐거움이 컸고, 함께 공부한 공동체 식구들도 큰 은혜를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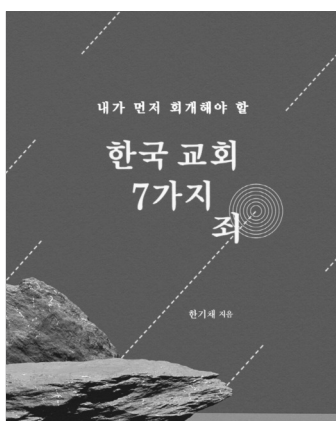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별 탈 없고 꽤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바닥나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위기의 시대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해온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고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기독교가 걸어온 길을 탐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범람하는 콘텐츠에 휘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원천과 깊은 영성의 샘을 길어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인 ‘신앙의 원천(ad fontes)’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길 아니겠는가?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회개해야 할 일곱 가지 죄!



〈한국 교회 7가지 죄〉
한기채 저 | 두란노 | 12,000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책 〈한국 교회 7가지 죄〉제목 앞에 달린 수식어다. 저자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건물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돕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

한기채牧사는 한국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다루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곱 가지 죄를 꼽았다. ‘영적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사사화’, ‘진목과 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책에 기록된 일곱 가지 죄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과 나아가야 할 모습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살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프간 순교자 이경휘 선교사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찾아온 이경휘 선교사(미국)도 순교했다.

10대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이경휘 선교사는 IT분야 전문가로 성장했다. 1997년 태국 단기선교를 계기로 선교에 관심과 열정을 품게 됐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경휘 선교사는 미시간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했다.

이경휘 선교사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으로 3주 일정의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후 “더 늦어지면 열정이 식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다. 2011년 10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이경휘 선교사는 불과 한 달여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프가니스탄에 물어달라”던 이경휘 선교사의 유지를 따라 현지에 매장했다.

터키 순교자 김진욱 선교사



터키에는 약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난민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진욱 선교사는 터키 산르우르파와 디아르바크르 지역에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뛰어난 기타리스트였던 그는 선교단체에서 반주자로 활동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2016년부터 터키에서 난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현지인 청년에게 터키어를 배우면서 그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선교지를 옮긴 뒤에도 터키어를 가르쳐준 청년과 꾸준히 만나서 그의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김진욱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먹고 자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도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신실했다.

2019년 11월 20일 카페에서 이웃과 차를 마시던 김진욱 선교사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범인은 16세 청소년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민의 죽음과 장례

2021년 7월 12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마틴 씨(37세, 가명)가 사망했다. 마틴 씨는 2020년 11월 8일 공휴일에 외출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 긴급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마틴 씨는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지난 2월 의료보험을 상실했다. 마틴 씨의 고용계약은 올해 4월까지였는데 말이다. 회사에서 마틴 씨를 퇴사 처리하고 다른 이주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퇴사 처리된 마틴 씨는 체류자격이 임시비자로 변경되면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진료비를 적용받다 보니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솟아갔다. 마틴 씨가 사망하기까지 의료비 총액이 8,850만 원에 달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나는 곧바로 병원 관계자와 의료비 협상에 들어갔고, 필리핀 사람을 구해 유가족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필리핀 대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필리핀 여성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필리핀에 있는 유가족을 찾아서 장례절차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필리핀에 있는 유가족 중에서 고인의 배우자를 찾아서 위임장을 만들어 필리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 진료
9841		2020-11-08~2021-02-17(102)	[] 야간 [] 공휴일
진료과목	진료과목(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신경외과()		이호	건강보험
			영수증번호 (연월-일련번호)
			2021082300608
항목	금액	비율	금액산정내역
	본인부담금	진액	선택진료료
진료료	162,707	1,405,543	⑦ 진료비 총액 (1+2+3+4+5)
입원료	2,006,345	15,913,055	⑧ 환자부담 총액 (1-6)+3+4+5
1인실	122,475	122,475	⑨ 이미 납부한 금액
2-3인실	28,379	202,028	⑩ 감면액
4인실이상	120,793	1,196,954	⑪ 납부할 금액 (8)-(9)-(10)
식대	347,819	3,614,832	카드
투약 및	766,799	7,511,749	현금영수증
조제료	84,246	1,598,843	현금
행위료	2,087,860	17,346,953	합계
약품비	819,917	8,913,282	5,000,000
주사료	82,562	814,604	납부하지 않은 금액(10-11)
마취료	272,569	3,151,245	카드 총액
처치 및 수술료	17,767	100,274	카드 번호 532092*****
결산료	147,242	2,797,604	승인 번호 32738202
	179,551	2,142,983	가맹점 번호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일시불
			현금승인번호
			미수액 12,119,740



강제 퇴사 처리를 당해 8천여 만원까지 쌓인 진료비 영수증과 마틴 씨의 유골함.

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수령하고 곧바로 고인이 안치된 병원 관계자와 만나 미납된 의료비 일부를 해결했다. 고인의 유품인 통장과 신분증 등은 병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통장 잔액의 1/3을 의료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유품을 인계 받았다. 다행히 고인의 통

장에는 보험금과 고인이 모아둔 비교적 큰 돈이 고스란히 저축되어 있었다. 고인의 유골을 보내는 항공비와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가족에게 보내드렸다. 8월 24일 시신을 인도받고 곧바로 화장터로 향했고, 그 다음날 고인의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렸다. 사망한 지 42일 만에 마틴 씨의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30대 마틴

씨가 유골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을까?

남은 일정이 정말 많다. 마틴 씨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급여 등을 받고, 고인의 은행거래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야 한다. 또한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가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데도 불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퇴사 처리와 함께 의료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주민이 사망하면 사후정리가 산 넘어 산인데 지자체나 정부 부처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돕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사망한 이주민의 사후정리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마틴 씨의 이야기는 온누리교회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가 마틴 씨의 이야기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이유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공(公)과 사(私) 말고 영(靈)적인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하는 게 크리스천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주민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 송인선 집사(부천온누리교회, 경기글로벌센터)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2018년 내 나이 51살에 늦둥이 권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떠나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축복을 주셨다. 1년 반 동안 대전과 인천을 오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우리 가정을 다시 뭉치게 하셨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포의 새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게 해주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늦둥이와 매일 밤낮으로 붙어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체험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김포로 이사 오면서 좋은 순에 소속되었다. 젊고 밝은 순장님과 순모님, 친자녀 대하듯이 살피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이상 내가 말씀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여러 양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주는 기쁨에 흠뻑 빠졌다. 90일 새벽기도와 성경일독이 나를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었다. 직장생활로 피곤한데도 알람 없이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에 푹 빠



손영환 순장(김포공동체)이 순장학교를 수료하며 "기도하는 순장, 섬기는 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져있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무리지어 갈 무렵 순장님의 권유로 순장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순장학교 강의를 들어보라는 순장님의 권유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탁월하게 순을 이끄시는 순장님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한

편으로는 기대도 있었다. 정말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순장이 되었을 때 순원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순장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Zoom으로 리더 집사님과 여섯 분의 순장님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안에서 배우는 것

이 많았다. 우리 조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원들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순장님들과의 나눔이 참 깊었고,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 3조와 함께 할 수 있는 10주가 정말 행복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순장학교 강의를 듣는 행복한 10주가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 매일 아침 QT가 기다려졌다. 새벽에 배와 아침 기도가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는 힘이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나라와 민족,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애통함을 주셨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다. 순장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셨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린다.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순원들을 진정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순장, 섬기는 순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손영환 성도(김포공동체)

기도하는 순장, 섬기는 순장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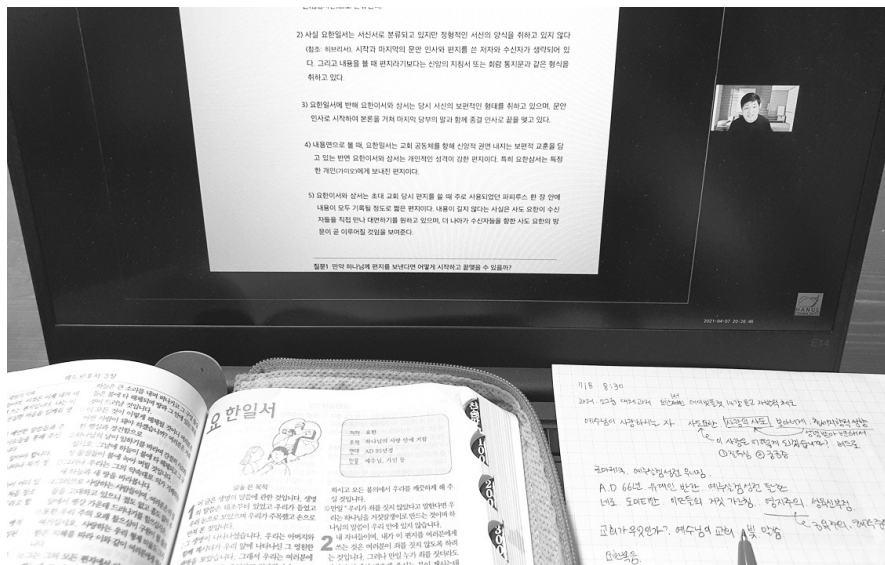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아카데미
'요한서신' 수료 간증

바이블아카데미 요한서신 강의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만큼 유익했다. 매주 수요일 배행삼 목사님께서 해주신 요한서신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면서 깨달음과 반성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나는 요한서신 강의를 들으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나는 기복신앙으로 인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 당시 나에게게는 구약의 하나님만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때문에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자주 빠지곤 했다. 죄책감에 빠지고 반성을 하면서도 변하지는 않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다.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일에만 간신히 예배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오랜 방황의 시간이 지나고 신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깊은 회개를 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



이지선 자매(SNS청년부)가 바이블아카데미 요한서신 강의를 듣고 있다.

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는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은 죄들을 모르는 척 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해 슬퍼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여전히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겠지만 지속적인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나는 주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떠오르는 죄들을 고백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

여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요한서신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이 '사랑'이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참음'과 '용서'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자고 결단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원망과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기로 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사랑한다는 말을 나름 많이 하는 편이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 했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다. 공황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성과 회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이지선 자매(SNS청년부)

코로나19, '아웃리치'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원 SEED대학부
온라인 아웃리치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수원 SEED대학부 여름 아웃리치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만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고등부 때 아웃리치를 갔던 영월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고등학생 때 만났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잘 자랐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해주고 계실지 열려 만나고 싶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월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축복할지 매일 회의하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의 때마다 소망과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셨다.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영월교회의 사정으로 아웃리치가 잠정 보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실상 취소였다. 영월교회 학부모님 중에서 외지인이 오는 것을 걱정하신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온라인 사전 미팅에 아웃리치팀원 전원이 참석해서 기도했다. 또한 영월교회의 요청에 따라 코딩 교육을 준비했고, 멘토링, 연령별 캠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아웃리치였기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원 SEED대학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다.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몰려왔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차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온라인 모임을 이어갔다. 아웃리치는 취소됐지만 언젠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이라도 전달하자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어느 날,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아웃리치 팀모임

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SEED대학부 목사님께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면 캠프를 요청하셨다는 소식이었다. 아웃리치 팀과 영월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였다. 또한 3주 동안 물품만이라도 보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아웃리치 진행에도 전혀 차질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하고 깊은 기도로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다 됐다 싶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직접 영월교회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도 방법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영월교회 차세대 캠프를 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당일 모든 팀원들이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왔다. 온라인 생중계로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과 음향 등을 체크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팀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영월교회 차세대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내년 여름에는 직접 가서 그 꿈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즐거운 여름을 매년 맞이하고 싶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 수원 SEED대학부 영월교회 아웃리치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퀴기대회 개최

17개 협력교회, 러브소나타 초청대상자 참석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퀴기대회를 지난 8월 29일(주일) 야마가타남부교회에서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의 성공과 협력교회 성도들의 전도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야마가타 지역 17개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 러브소나타 초청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퀴기대회는 토리이 칸지 목사(야마가타 제일성서침례교회) 기도, Third Place Worship(초교과 위십그룹) 특별찬양, 치다 지로 목사(케이센그리스도교회) 메시지,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치다 지로牧사는 ‘너와 네 집이’(행 16:3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치다 지로牧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면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를 준비하자”고 권면했다.

김의래 집사(중종로공동체, 러브



지난 8월 29일 열린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퀴기대회 중 위십그룹의 찬양.

소나타 국내 실행위원회)는 “이번 퀴기대회에서 야마가타 교회들이 러브소나타의 네 가지 꿈 ‘부흥, 화해, 선교, 문화’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오카 사오리 집사(일본어예배부)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

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금)에는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일본 칸사이 지역 협력교회와 목회자 56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김하중 장로(전 외교관, 주중대사)가 강의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

9월 21일 개최 앞두고 릴레이 기도회 이어져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 개최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릴레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에 참석하는 주요 15개국(1개국에 2일씩)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문을 온누리M미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있다.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는 9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팔, 태국, 미얀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언어로 번역 및 통역된 찬양, 설교 영상이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평택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개설

9월 5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첫 예배

평택온누리교회가 영어예배를 시작한다. 9월 5일(주일) 오후 2시 2층 평택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경기도 평택은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용산에서 이주한 미군들과 외국인들이 늘면서 영어예배 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평택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는 영

어권에 속한 외국인 성도, 영어예배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는 “평택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의가정훈련 학교 수강생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하가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10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10만 원.

문의: 010-3749-6981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전환훈련’ 온라인 세미나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정진 목사(새중앙교회 교육목가)가 강의한다.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7만 원이다. 9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 9월 7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이예은 자매(대학청년부)는 지난 해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 중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매우 답답했다. 그녀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를 소개해준 것. 이예은 자매는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가 9월 7일(화) 개강한다.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줌(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종길 목사 ‘하나님과 의 관계’, 이기원 목사 ‘사람과의 관계’, 여성민 목사 ‘생명의 삶’을 주

제로 모임을 인도한다.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교회에서 참여링크(Zoom)를 보내준다. 지난 학기 참여했던 성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이상 성도들이 대상이다.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는(무공동체) 성도, 전도 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이다.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 신앙생활 전반을 돕는다.

문의: 02-3215-3214

아름다운동행 코치반 모집

9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

아름다운동행 코치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 코치반은 ‘아름다운동행 지원자반’ 수료자가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면서 친밀감을 재충전하고, 부부코치로서 역할을 키우는 과정이다.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운영 특강, 3시부터 ‘아름다운동행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코칭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부코칭 실습’ 등을 주제로 2주 동안 강의를 이어간다. 수강신청은 9월 19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9041-5538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NGO 더멋진세상 ‘HIV 보균 아동 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HIV 보균 아동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한다. ‘HIV 보균 아동 지원’ 캠페인이 그것이다.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네팔 HIV 보균 아동들에게 작은 선물과 영양키트가 담긴 ‘희망의 선물 박스’를 선물한다.

HIV 보균 아동 지원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희망의 선물 박스 가격은 3만 원이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전도폭발훈련 훈련생 모집

서빙고 주간반/저녁반, 양재 주일반/수요반

전도폭발훈련 서빙고 주간반과 저녁반, 양재 주일반과 수요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빙고 주간반 9월 6일~12월 13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저녁반 9월 6일~12월 13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주일반 9월 5일~12월 5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수요반 9월 8일~12월 8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

은 별도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주간반과 저녁반 9월 13일, 양재 주일반 9월 5일, 수요반 1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3801-1215(서빙고 주간반), 010-8625-9000(서빙고 저녁반), 010-8711-2831(양재 주일반), 010-6228-4825(양재 수요반)

창조신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창조신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요일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화요일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조신앙아카데미는 창조과학

법론을 이해하고, 성경과 과학을 함께 사용해서 전도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일요일 9월 27일까지, 화요일 10월 5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4658-0987(일요일) 010-7292-2349(화요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동학, 엄인경 선교사(중앙아시아 D국)

모두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신지요?

요즘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고 애타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몇 년째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에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에 더욱 하루하루의 안녕과 평안한 일상이 소중합니다. 물 부족으로 올해는 매일 밤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밭과 보리 수확을 포기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전력생산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이 나라에서 물 부족은 전력 부족을 의미합니다. 올해 농사는 참 위태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곳의 고아원에 나눌 수확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년 모임과 함께 계획했던 여름사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안경을 제작해 주는 사업만 했습니다. 안경사역을 위해 현지인 동역자와 세 도시를 다녔습니다. 지난겨울 이 일로 방문했던 지역인데 당시 안경을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확인하고 다시 조정해드리고 왔습니다. 지난겨울 받은 안경을 사용하는 7세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고, 보이는 것도 더 선명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더 잘 바라보면서 참 빛을 찾

기를 소망합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미디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에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난 6월 말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 증상이라고 알려진 증상들이 거의 다 나타났지만 심하게 겪지는 않았습니다. 때마침 친구가 보내준 비타민이 우편으로 도착해서 꼭 필요할 때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난 이후 부모님의 환갑과 칠순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 아버님의 팔순에는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팔순이냐고 손사래를 치시며 극구 반대하시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야 자식 된 도리를 못 하는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사랑과 격려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온라인 창조과학 탐사 수료 간증



/ 하윤해 자매(J4U청년부)

기꺼이 주님 편에 서는 과학자 되기를

만지 않는 한 친구가 물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괴리감을 주지 않아?”

그 질문에 나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가 대비된다는 그 친구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공부와 신앙생활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전공 연구와 진행되는 과정, 진로 등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질학은 학문일 뿐이고, 말씀과 별개로 여겼다. 그래서 ‘온라인 창조과학 탐사’라는 강의 이름이 흥미로웠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창조를 배운다면 흔히 말하는 ‘창조론 VS 진화론’의 대립구도, ‘자연 선택설’과 같이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다룰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만 선교사님이 나와 같은 지질학 전공이라는 사실이 반가웠다. 그 반가움은 잠시뿐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의 근간이 흔들렸다. 내가 무엇인가를 착각한 수준이 아니라 다 알아엿어야 했다. 내 책상 옆에 늘 붙어

있는 지질 연대표를 지워버리라니. 46억 년이라고 알고 있던 지구 나이가 고작 일만 년이라니.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어느 논문이나 들어가는 내용이라 너무 혼란스러웠다. 나처럼 지질학 대학원생이면서 크리스천인 친구들과 토론했다. 우리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 강의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더 어려워졌다.

내가 진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순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중보기도가 이뤄져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더 은혜로운 간증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간증 쓰는 것을 망설인 이유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는 혼란스럽고 의문점이 많다. 그러나 주님은 공부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을 온라인 창조과학 탐사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다.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셨다.

더이상 학문과 주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어서 감사하다. 내가 걷게 될 학문의 길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친구의 물음처럼 내가 아는 과학이 주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기꺼이 주님 편에 서는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서은혜 성도(거룩한빛온정교회)

우리 가정을 위한 소망

주변의 강권에 못 이겨 두란노어머니학교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강의를 듣겠다는 마음으로 가벼이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깊이 만져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5주 동안 강의와 소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배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쓴 뿌리와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두란노어머니학교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아픔과 상처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노력과 기대 없이 나를 두란노어머니학교로 부르셨다. 회복의 길 위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나에게 선물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내 안에 깊이 묻혀있던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놓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다. 소망도 주셨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내게 더 특별한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새 생명을 품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하신다. 이 아이가 무엇보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 같아 기쁘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두란노어머니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가진 소망이 있다. 남편을 향한 소망이다. 언젠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남편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업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기도한다.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 큐티스쿨 독후감



/ 이형선 집사(강동온누리교회)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큐티스쿨 과제로 하용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읽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책 한 문장 한 문장에 묻어 있는 목사의 흔적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늘 큐티를 강조하시던 목사님의 깊은 뜻도 헤아릴 수 있었다.

큐티의 핵심은 깊은 묵상과 적용이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진정한 큐티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를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인격과 영적 태도를 갖게 된다.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된

다.

책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읽으면서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늘 정신없이 말씀 읽기 바빴다.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없으니 삶이 변화될 수 없었다. 이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 큐티야말로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큐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사르밧 과부를 위한 교회



박순길 장로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

나는 쌀을 떠올리면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양식’, ‘따뜻한 고향’,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난다.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절이면 이웃들과 쌀을 나눈다. 온누리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사르밧 프로

젝트’를 실시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농어촌교회에서 쌀을 구입해서 교회 안과 밖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다. 외연만 보면 매월 펼쳐는 구제봉사와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많은 성도들이 ‘사르밧 프로젝트’를 때 되면 하는 ‘구제미’, ‘공홀미’의 연장 정도로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2000 포대의 쌀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사르밧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다.

사르밧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름이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가루 기름 한 종지가 전부였다. 기근에 시달리던 사르밧 과부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밖에 나갔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다.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그녀에게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을 떠달라고 부탁한다. 사르밧 과부가 물을 뜨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는

“빵도 좀 주시오”라고 덧붙인다. 곧 죽을 생각이었다는 사르밧 과부의 대답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왕상 17:13-14).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다. 그 순종의 대가로 여러 날을 먹어도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엘리야와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사르밧 과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살아갈 의미를 찾았다.

코로나19로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작은 엘리야가 돼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쌀을 준비하고 있는 농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나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교회는 이웃을 돕는 교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때 이웃들을 살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다. 쌀 20kg이 어느 정도의 도움과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이 전해주는 위로와 사랑, 용기가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자와 나그네를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바로 추수감사주간에 찾아 우리의 이웃이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나이 50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나는 얼마나 싸우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니 참으로 많은 싸움을 했다. 가장 많았던 싸움은 가족들과의 싸움이다. 물론 아주 심각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민한 감정싸움까지 포함하

면 당연 1등일 것이다.

나와 우리의 진정한 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든 인류를 죄짓는 부류로 전락시키고,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다(요 8:44).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요일 3:8).

안타깝게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을 귀신 쫓는 사역에만 국한시켜 예수 복음을 전파해 왔던 사람들과 모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이 사역했던 중심지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공공롭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발견했다. 그 공동체는 열심히 귀신 쫓는 사역을 했음에도 그들이 있는 공동체의 주변, 멀지 않은 주택 주변에 어마어마한 점집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 귀신을 쫓는 것만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들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 주변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세력까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며, 승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영희 권사
(경기A공동체)

길어지는 비대면 일상에 조금씩 지쳐 가던 어느 날, 경로당 폐쇄로 갈 곳 잃은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인천공항으로 모인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2015년 ‘1다락방 1사역’으로 만났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올랐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발달장애가 있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다. 노쇠한 어르신들처럼 그 할머니도 몸 여기저기 찌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집안일을 할 수 없고, 반찬도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알지 못하는 손주가 반찬투정을 하면 할아버지는 손주와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했다. 반찬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반찬을 사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할머니의 소원은 “빨리 죽는 것”이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다락방과 만남을 갖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교회에서 1다락방 1사역을 추진 중이었기에 안양평촌공동체 온유다락방(2015년 당시 명칭)의 1다락방 1사역으로 할머니를 돕기로 했다. 그 할머니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반찬을 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교회를 싫어하고, 또 집사님들과 마주치면 자존심 상한 마음을 할머니와 손주를 향해 퍼부

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당시 다섯 순으로 구성되어 있던 우리 다락방은 1순부터 한 가정씩 일주일 분량의 밑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아침 할머니 댁 문 앞에 갖다 놓았다. 할머니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10분 후에 문자메시지를 드렸다. 다락방 식구들은 본인의 사역 순서가 되면 반찬은 물론이고 과일, 때로는 손주에게 줄 티셔츠를 사서 전달하는 등 정성껏 섬겼다. 반찬 봉사 사역이 끝나는 주에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다.

“내가 죽으면 장에 있는 손주는 어쩌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손주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네요. 식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차츰 몸도 마음도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교회 집사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주한테 폭언도 줄었고요. 온누리교회 집사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죽고 싶다”는 말이 단지 푸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무게를 버텨내기가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음을, 세상을 향한 살려달라는 절규였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했던 2015년 1다락방 1사역을 돌아보며 코로나19 팬데믹일지라도 사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1다락방 1사역이 한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음에 또한 희망을 본다. 비대면 상황에서 접촉하지 못할지라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위드 지저스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싸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항하심으로 믿는 모든 인류를 의와 생명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어두운 거짓의 사역을 멸하시고, 빛나는 진리의 승리를 이루셨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민족들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막 싸움을 하는 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

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삿 1: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의 대상을 빠르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혼자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으로 인도하셨다.

사실 하나님의 싸움은 전쟁의 공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을 바르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사사’(Judges)라고 불렀다. 진정하고 유일한 심판관이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나와 우리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바르게 싸우게 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인생의 짐을 지는 새로운 방식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읽는 랍비들의 방식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명에입니다. 모든 랍비가 자신만의 명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명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명에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명에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명에였습니다. 질수록 더 힘겹고, 더 고되고, 더 죄에 얽매게 하고, 짐을 더 지우는 명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더 곤비해진다면 분명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점점 강박해진다면 잘못된 명에를 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추구했던 종교적 명에를 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명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에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왜 인생의 짐이 가볍고 쉽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명에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처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명에를 지고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죄가 믿음을 파괴했는데 십자가 은혜로 다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에를 메고, 예수님의 겉음과 방향, 지혜와 마음을 따라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명에를 메고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명에를 메고 동행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명에를 지고 가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에를 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출석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에를 함께 지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만 해도 마음이 평안할 텐데 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니까? 왜 질투가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왜 불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들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마음의 짐도 있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신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종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하고 이루신 것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신 것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이라면, 내 안에 새 사람과 새 생명을 주셔서 동행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서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버트 멩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밀한 벽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열려고 하니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십시오. 거긴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같이 못 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거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명에를 메고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 동행하며 모든 삶과 마음을 숨김없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짐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내 명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을 벗게 하시지 않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새롭게 지는 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에를 지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명에를 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인간 창조, 그 놀라운 신비



이성근 순장
(서대문공동체, 치과의사)

사람나는 입의 맨 안쪽에 있는 세 번째 어금니이다. 앞쪽의 두 개 어금니와 함께 음식을 소화하기 좋도록 절구 기능을 한다. 사람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는 대략 17세부터 잇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해서 약 25세까지 진행된다. 영어로는 ‘wisdom tooth’, 한자로는 지치(智齒)라고 한다. 아마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닌가 싶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사람은 사람(지치)는 변화무쌍한 첫 사랑같이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중요한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상악동과 하악신경)에 근접해 있어서 지혜롭게 접근하라는 의미로 다가

온다. 사람나는 입의 맨 안쪽에 있는 세 번째 어금니이다. 앞쪽의 두 개 어금니와 함께 음식을 소화하기 좋도록 절구 기능을 한다. 사람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는 대략 17세부터 잇몸을 뚫고 나오기

온다.

사람나를 반드시 뽑아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진화론 교육에 의해 사람나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흔적(痕跡, vestigial) 기관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나가 제 위치에 나면 딱딱한 구운 오징어도 씹을 수 있으니 뽑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람나 대부분(약 80%)이 똑바로 나지 않고 앞쪽 어금니 쪽으로 일부 혹은 전부가 비스듬하게 누워서 나는 바람에 앞 어금니의 머리(齒冠)와 뿌리(齒根) 부분을 찌게 하거나 앞 치아의 배열을 흐트린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나는 잇몸이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이것이 뼈와 목까지 퍼지면서 음식 섭취를 어렵게 하거나 정말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사람나를 뽑거나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잇몸을 제거해서 더 이상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사람나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까?

첫째,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작은 악골과 큰 치아를 물려받게 되면 사람나가 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나가 위치와 개수, 머리 크기와 뿌리 모양 등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아예 사람나가 없는 경우도 있다(약 7%). 사람나의 질서를 만드는 유전자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구강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다. 부드러운 음식 섭취로 인해 씹는 횟수가 부족해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까지 턱의 발달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이유도 있고,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소아청소년이 심한 구호흡(口呼吸)을 해서 입안에 음압(negative pressure)이 생기게 된 이유도 있다. 특히 지속적인 구호흡으로 인한 입안의 음압은 위 어금니 구개측 변위를 초래해서 아래 어금니와 잘 맞물리지 못하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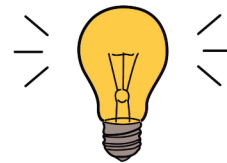
면서 아래턱을 뒤나 아래로 이동시켜서 사람나가 위치할 공간 부족을 야기한다.

유전적인 문제와 턱뼈의 공간 부족으로 생기는 사람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나를 사람의 진화 과정에서 치아가 퇴화하다 남겨진 아무런 기능이 없는 흔적 치아라고 여기고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할까? 이런 식의 진화론적 패러다임은 창조론뿐만 아니라 치의학적으로도 잘못된 관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람나가 본래의 씹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는 귀중한 치아임을 애써 무시한다. 사람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유전자나 생활습관 등이 창조질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나 문제는 우리의 왜곡된 일상의 삶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감추어진 축복의 통로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CGNTV

2021 기록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응모기간

2021.
9. 13.(월) ~ 11. 7.(주일)

규격

아이디어 제안 배경, 기획의도, 제안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콘텐츠 제안서**

15페이지 이내의 가로 16:9 슬라이드 형식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1차 결과 발표

2021년 11월 15일

최종 PT 및 시상식

2021년 11월 26일 (참여 방법 추후 공지)

응모내용

응모자격 1993. 01. 01 ~ 2002. 12. 31 이내 출생자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
(팀 지원의 경우 팀원 전원 연령 자격 충족 필요)

응모방법

구글 폼 설문 접수
(CGNTV 웹사이트, 블로그 참조)

* 1차 선정자는 11월 26일(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대상	1팀	상금 500만원
금상	1팀	상금 200만원
은상	2팀	상금 각 100만원
동상	2팀	상금 각 50만원

* 수상작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자 중 일부는 CGNTV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02-3275-9321 Email. cgnpr@cgnmail.net

*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